

'100만달러 이하' 외인 붐...환영과 우려 사이

(총 몸값)

몸값 거품 뺀 합리적 지출 긍정적 검증되지 않은 '저렴한 선수' 의문 벌써 9명 새얼굴...내년 시즌 관심

내년 시즌 KBO리그를 누빌 외국인 선수들의 면면이 속속 가려지고 있다. 예년보다 훨씬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11월이면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과거와 크게 다른 양상이다. 무엇보다 새 얼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벌써 9명이다. 거포 1루수를 찾는 LG 트윈스도 조만간 메이저리그(ML) 필라델피아 필리스 출신 토미 조셉(27)과 협상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천정 부지로 치솟기만 하던 외국인 선수의 몸값 역시 확 낮아졌다. 신임 외국인 선수들은 모두 100만달러(약 11억 3000만원) 이하다. 넥센 히어로즈와 계약한 에릭 요키시(29·투수)는 불과 50만달러다.

● '100만달러 상한선+소득세율 인상'이 바꾼 풍속도

KBO는 9월 이사회를 통해 '새 외국인 선수 몸값 100만달러 상한제'를 발표했다. 연봉은 물론 계약금과 이적료까지 합쳐 100만달러를 넘기면 강력하게 처벌한다. 재계약 시에만 100만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올해부터 외국인 선수에게 최대 42%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종전보다 두 배다.

이 두 가지 변화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커리어가 화려한 일부 외국인 선수들은 과거 KBO리그 구단과 협상하면서 전략적인 '밀당'을 통해 몸값을 높여온 했다. 이들을 보유한 ML 구단들도 이적료를 챙기기 위해 흥정에 가세했다. 이 때문에 신임인에도 가볍게 100만달러를 넘겼다. 상한선과 제재 규정이 신설되자 '밀당'이 줄면서 조기에 계약이 성사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 인상은 외국인 선수의 재계

2019년 신임 외국인 선수 현황 (기준 달러)

구단	선수	나이	포지션	계약액
SK	브룩 다익슨	24	투수	70만
한화	워릭 서폴드	28	투수	100만
	채드 벨	29	투수	60만
넥센	에릭 요키시	29	투수	50만
KIA	제이미 해즐베이커	31	외야수	70만
	제이콥 터너	27	투수	100만
삼성	저스틴 헤일리	27	투수	90만
LG	케이스 켈리	29	투수	100만
KT	리울 알칸타라	26	투수	65만

* 27일 현재

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맺지 않은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선수들의 경우에는 양국 모두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 까닭에 KBO리그 취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에이스 헛터 노에시(31)가 재계약 제안을 받고도 뜬을 들이고 있는 이유다. 기존 외국인 선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 자리를 몸값 100만달러 이하의 새 외국인 선수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 외인 몰림...군살 제거? 수준 저하?

KBO는 9월 이사회에서 FA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4년 80억원의 몸값 상한제 도입이 골자였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거부로 무산됐지만, 'FA 상한제'는 이미 대다수 구단들의 공감을 얻은 상태다. 잠복 모드인 FA 상한제와 달리 새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제는 곧장 작동되고 있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FA든 외국인 선수든 KBO 구단들이 적극적으로 '군살 제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합리적 지출을 통해 군살 또는 거품을 뺀다면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저렴한' 외국인 선수들이 내년 시즌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의문이 따르는 것도 냉정한 현실이다. 어쩌면 '수준 저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다행히 시행착오로만 그치고 KBO리그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본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2019년 KBO리그를 누빌 외국인 선수 계약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새 얼굴이 벌써 9명이나 된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출신으로 최근 LG 트윈스와 계약한 케이스 켈리도 내년 KBO리그에 데뷔하는 새 외국인 투수다.

김현수, LG 새 주장에 선임

LG 트윈스가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선수단 전체 미팅에서 김현수를 신임 주장으로 선임했다. 김현수는 "기쁘고 열렬하다. 어려운 자리지만, 선수들을 믿고 모두 함께 잘 해나가겠다. 믿고 맡겨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코칭스태프 개편도 이뤄졌다. LG는 세리자와 유지, 감독염, 유동훈, 박용근 코치를 새롭게 영입했다. 송구홍 2군 감독과 재계약 하지 않기로 했고, 이상훈 코치는 올 시즌 후반 육성시스템인 '아카데미'가 폐지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해 팀을 떠나게 됐다. 새로 선임된 코칭스태프 보직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몸값 제한된 외인, 보유 한도 늘릴 때다



취재파일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질과 양의 적절한 배합을 통한 균형형은 운영의 기본원칙 중 하나다. KBO리그 외국인 시장은 2019시즌부터 질의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양의 증가를 통해서라도 외인 시장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7시즌 종료 후, 지방 A팀 감독은 임명을 전제로 "타고투저의 완화를 위해서 공인규 규격이나 스트라이크 존을 지적하는 여론이 많다. 그런데 외국인 선수 보유 확대에 대한 주장이 나오지 않아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A팀은 2017시즌 외국인 투수 농사 풍작을 거뒀지만 감독은 리그 전체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말했다.

KBO리그는 2015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를 세 명까지 늘렸다. 동일 포지션으로 세 명을 몰아넣는 것은 불가능한 탓에 대부분의 팀들이 투수 2명, 타자 1명으로 엔트리를 채운다. 외국인 선수 조각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다. 당장 올해 영입했던 에스밀 로저스(150만 달러), 양현산(110만 달러)나 지난해 제프 맨프(180만 달러) 등이

값과 몸값 모두 상위권의 투수들이 KBO리그를 찾았다.

하지만 2019시즌부터 새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몸값 상한선(총액 100만 달러 이하)을 넘지 못한다. 구단들이 옵션 등으로 암암리에 찢러냈던 '뒷돈'에 대한 제재도 강해졌다. 100만 달러에 KBO리그를 밟을 수 있는 외국인 선수의 수준은 예년에 비해 몇 단계 낮아졌다.

질이 떨어진다면 양으로 보완해야 한다. 수도권 B팀 감독은 "팀마다 한 시즌에 평균 한 번 이상은 외국인 선수 교체를 단행한다. 이때 드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구단 운영비의 상당 비중을 외국인이 차지한다"며 "출장은 세 명 정도를 유지하더라도 보유 한도는 5~6명으로 늘려야 한다. 무늬만 육성형이 아닌, 구단 차원에서 육성할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C팀 프런트 핵심 관계자 역시 "일본프로야구는 좋은 참고 모델이다. 일본은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이 없다. 다만 1군에 4명만 등록시킬 수 있다"며 "일본에서도 육성을 통해 1군급 자원으로 성장시킨 선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외인 보유 확대는 프리에이전트(FA) 몸값 거품과 기형적 타고투저 등 KBO리그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